



안녕하세요? 저는 최양금 수녀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유아 세례를 받은 저에게 성당 마당은 놀이터여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성당 마당의 성모님과 예수님께 먼저 인사드리고 뛰놀며 저의 신앙은 자랐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1982년 여름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만난 예수고난회 신부님께 사랑의 씨튼 수녀회를 소개받았고, 그해 9월 성소 피정에 참석했습니다. 수녀원 현관문을 들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재촉하도다.

겸양, 소박, 사랑”이라는 수녀회 모토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제 삶의 가치를 찾은 듯했습니다. 1983년 3월 1일 입회했고, 매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마더씨튼의 평범함의 영성 안에서 1987년 2월 15일 첫서원을, 1991년 2월 2일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의 본당 사도직을 통해 교우들과 가난한 이웃을 방문하며 현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피츠버그의 씨튼 하우스와 그린스버그의 씨튼 힐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관구의 수녀님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문화 체험도 하였습니다.

이후 광주대교구 농민 사목에 파견되어 땅을 살리는 농법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만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한 시간은 제 삶에서 참 귀한 체험이었습니다.

씨튼 가족, 관구 이사, 씨튼동반회 등의 사도직을 통해 수도회와 수녀님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수도회의 미래를 고민했던 소중한 체험들은 저를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저와 같은 그룹인 윤경란 수녀와 안미령 수녀가 있어 수도 생활 40년 동안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수도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 씨튼동반회원들과 동행하고 있으며, 올해 오순복 수녀, 박인영 수녀와 함께 구로구 가리봉동 쪽방촌에 새롭게 파견을 받아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라는 내적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면서 그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섬

기고자 오늘도 저 자신을 재촉해 봅니다.

그동안 평범한 저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과 기도로 동행해 주신 모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Hello, Sisters! I'm Sr. Choi, Yang Kumm. Being baptized as an infant at two months old, I used to spend most of my time in the Church. Recalling my childhood, I think my faith grew because whenever I came home from school, I went to Church, and ran around greeting the Blessed Mary and Jesus statues. By the providence of the Lord, one day in the summer of 1982, I was introduced to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by a Passionist priest I met on a bus, and in September of that year, I went to participate in a vocation retreat. When I walked through the convent's front door and saw the Congregation's motto, "The love of Christ urges us: Humility, Simplicity and Charity," my heart was stirred, and I knew I had found my life's value.



I entered on March 1, 1983, made my first vows on February 15, 1987, and final vows on February 2, 1991, in the spirituality of the ordinariness of Mother Seton that enriched my daily life. Through my parish ministry in various places, I shared the love of the Lord in action by visiting parishioners and the poor. Later I lived at Seton House in Pittsburgh and also studied at Seton Hill University in Greensburg, where I was loved by the US Sisters and experienced a new culture.



Later I ministered at the Department of Ministry for Farmers of Gwangju Archdiocese, where I met farmers who practiced land-saving framing methods and worked for fair trade between consumers and producers, which was a valuable experience. My ministries as Seton Family Director, Provincial Councilor, and Seton Companion Director enabled me to understand and love sisters and the Order more, and the precious experiences of contemplating the future of our Congregation made me grow a lot. I have two other members of my group: Sisters Yoon, Kyong Ran, and Ahn, Me Ryong who have been my constant companions throughout my forty years of religious life and have walked the religious journey with me. Currently, I am accompanying the members of Seton Companions in the Seoul area, and this year, with Sisters Oh, Sun-Bok and Park, In-Young, I have been newly ministered in



Garibong-dong, Guro-gu, where there are many shanty houses for the homeless. I am faithfully responding to my inner call to choose the poor, so that I may encounter and serve Jesus in them. I thank the Lord for shedding my ordinary life and all the sisters who have accompanied me in prayer.